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탄소중립 초석으로 활용을

전북연구원 이주브리핑

전북 예산서 기준 회계·실국별 예산 사업유형 분석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 향상 사업 우선 대상으로 전문지원 조직 실무지원 포함 추진체계 마련 필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녹색재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23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주브리핑(장남정 선임연구위원)을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에 앞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누구보다 인식 전환이 필요한 정책결정자, 행정담당자가 참여하는 제도인 만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녹색재정 정책을 시범도입해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이주브리핑에서는 전라북도 예

산서 기준 회계별 실국별,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도입의 기본방향(안)을 제시했다.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보였다. 시범사업 추진은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전문지원 조직의 실무지원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지자체 탄소중립의 핵심 정책의 하나로 기후위기 정책사업 유효성 평가 및 모니터링, 담당자의 인식개선, 부서간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기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지난 3일 태풍 '힌남노'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태풍 '힌남노' 대비... "상황관리 빈틈 없어야"

7일까지 전북서 강풍·많은 비... 시설물 파손 등 피해 예상 조봉업 행정부지사, 피해 발생시 신속 응급복구 추진 등 당부

초강력 태풍인 '힌남노' 북상에 따라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선제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주문했다. 지난 3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4일~7일 힌남노에 매우 강한 비파괴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려 바다와 육지 모두에서 시설물 파손, 정전,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조부지사는 먼저 지난 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행안부장관 주재)에 참석해 태풍 예상 진로, 기상 전망, 중점 관리사항,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공유했다. 특히, 도 재난상황실에서 협업부서와

14개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라북도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따라 정위치 근무 등 상황관리 철저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요 당부사항으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물(도로, 하천, 산사태, 저수지, 재해취약지역 등)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를 지시하였고, 선박, 인양·대피 철수, 산사태 등·양식시설 사전점검, 낙파·벼 도복 대비 농작물 지주시설 및 비닐하우스 유인·고정, 낙하 위험물 고정·제거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피해시설 및 지역(2020년, 2022년 수해)에 대해 재난문자(CBS),

마을방송, 예·경보시설 등을 활용 재난상황 안내 및 도민 행동요령을 홍보하여 재피해 방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등 대비 강화, 필요 시 주민 사전대피 등 안전조치, 자율방재단, 이장 및 담당 공무원이 협력하여 선제적 예찰과 안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할 시점에 강력한 태풍이 상륙하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현재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등 태풍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 사전 제거, 예찰 활동 강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 “전주새뜰유치원 갑질 전 원장 중징계 후속 조치 서둘러야”

전교조 전북지부, “피해규모에 비하면 약한 징계... 갑질 근절 조례 등 제도 마련을”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전주새뜰유치원의 갑질했던 전 원장의 중징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교육청 갑질 근절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공청회까지 진행했으나, 관계기관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고, 교육당국에 조속한 법·제도적 갑질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이후, 얼마나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차 피해 관계자에 대한 문책, 피해교사 보호와 치유 지원, 관리자 대상 갑질 근절 연수 실시 등 전교조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징계가 확정된 지 얼마 안 돼서도 후속 조치들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교사들에 대한 갑질 행태로 공분을 산 전주새뜰유치원(공립 단설) 당시 원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완전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원장은 부적절한 인격모독성 폭언들로 비인격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하며 교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것. 이로 인해 교사 7명이 정서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상담을 받았고, 3명은 공황장애로 병가를 내야만 했다. 전교조지부는 이러한 피해 규모에 비하면 정직 1개월은 너무나 약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장들로 구성된 일부 모임이 유치원 교사들로부터 해당 원장을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지부는 “해당 원장은 여전히 한 교원단체의 임원으로 있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 군산시의회, 제9대 출범 후 전체 의원 워크숍 열어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의회 출범 후 전문성 제고와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체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일 자매도시 김천시에서 의원들의 일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 및 정책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1일 시의회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 김용석 교수로부터 지방예산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사례 등에 대한 강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강의를 청취했다. 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개발 및 현안 연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원연구단체 및 지방의원의 임무인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분석, 의정자료의 수집·분석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로써 11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전문 지식 습득으로 시 행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시민의 열정에 누수되는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관용 기자

## “양파 저장 창고 확보 시급”

김대중 도의원, 양파 생산농가 찾아 해결책 모색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더불어민주당)이 익산 양파 생산농가를 찾아 양파 생산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익산시 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양파생산자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산농협 정우창 조합장, 양파공동출하회 임원,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산면 양파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양파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산농협에 따르면 올해 여산면 양파 재배 면적은 84농가, 142ha 규모로 64만평(20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산농협에서 총생산량의 20%에 이르는 13만평(20kg)을 수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파 생산 농가는 “여산 지역 양파 생산량과 비교해 저장 창고가 부족해 여산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못하고 있어 양파가 무안 등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면서 지역 브랜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익산지역 양파 생산 농가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몇몇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요구했다. 덧붙여 “양파 재배자에 안정적인 관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파수확기 등 농기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생산한 양파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 타 지역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작물 공동경매체 육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온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 운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중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양파 수산지 지정 기준을 2023년부터 재배면적 800ha에서 190ha로 변경하면서 익산시가 양파 수산지로 지정이 가능하며, “향후 양파에 대한 정책지원이 확대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거짓말”

민주 한병도 의원 “국방부 등 부처 예산 전용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이라는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먼저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했음을 말하며, “당시 대통령의 발표에는 단순 이전 비용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조,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 비용으로 국방부, 행안부, 경

청청 등의 부처 예산이 전용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말한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이사비용”이라며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는 개념을 두고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라며 이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 끝으로 “대통령실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야당의 문제제기를 축소·은폐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올해 첫 라임병 환자 전북서 발생

참진드기 매개 발생, 초기에 발열·두통 등 증상 야외활동 후 귀가 즉시 옷 세탁·샤워 등 해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지난 2일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알려진 라임병환자가 도내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7일 전 타 시도로 캠핑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통, 피부반점,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 이 환자는 전국적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라임병은 보렐리아속균을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참진드기 매개 질병으로 주로 미국, 유럽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12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으며, 2012년 강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적으로 연간 10건 안팎의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잠복기(3~30일)가 지난 후 1기, 2기, 3기로 구분되는 임상 증상을 겪게 된다. 진드기 노출 후 약 1~3주 후에 주로 물린 주위에 원심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아롱 흉반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등 전신증상이 동반된다. 라임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면역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하게 항생제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다. 증상이 보인다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는 3~11월에 산이나 들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풀숲에 들어갈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후 귀가 즉시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가을철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진드기기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또한 추석 명절 전후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소매, 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에는 진드기 노출 후 1~3주 후에 주로 물린 주위에 원심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아롱 흉반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등 전신증상이 동반된다. 라임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면역

## 익산시-국립 전북도당 예산정책 현장 간담회

익산시와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서 전현을 시장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운천 국회의원, 지역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예산 시즌을 앞두고 직접 현장에서 현안 브리핑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적 논의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대응 전략과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국가동물케어산업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3년 완공 예정인 동물용의약품 평가센터와 연계한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석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규모 확대를 위한 ‘국립 석재산업 진흥센터 설립사업’, 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체류형 전통문화 복합체험공간 백제 금마저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